

THE FUTURE TIMES

창간 1998년 5월 12일

2015년 5월 12일 월요일

12개 사립대학 폐교 위기

해외대학 한국분교설립이 경쟁력 실추 원인

서울국립대학 개교이후 첫 미달사태 초래

전국 12개 사립대학이 입학 정원 미달과 심각한 자금난을 이유로 폐교될 전망에 놓여 1998년 교육시장 전면개방이후 사립대학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

부산의 32번 대학 XXX장은 "지난 2003년 인근에 스펀트대학 한국분교가 설립된 이후 입학생들의 수가 급격히 떨어져 내년 입학생은 50명 내외로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폐교를 결정하였다"라 밝혔다.

충남 2번 의과전문대학도 충남에 하버드 의과전문대 한국분교가 생긴이후 2014년 입학생이 30명에 그쳐 시설유지비 부

족과 하버드 의과전문대학의 부지매입 때문에 불가피하게 폐교하게 되었다.

사립대의 잇단 폐교움직임에 각 국립대학 총장들도 '사립대가 폐교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지금 국립대학도 계속되는 정원 미달로 인해 언제 그러한 비극에 봉착할지 모른다'라 말하며 지속적인 정부의 자금지원을 촉구했다. 이번 사립대 폐교움직임에 대해 교육부 XXX차관은 "교육시장 개방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각 대학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며 "국립대학의 입학정원이 줄고있는 지금 유망 마속의 심정으로 사립대 지원

기각할 수 밖에 없다"라 말해 앞으로 사립대 폐교는 더욱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립대학중 정부지원이 가장 많은 서울국립대학도 개교이후 처음으로 올해 미달사태를 맞이했다. 올해 서울국립대에 입학한 XXX(폐기물처리과)군은 "선배들 중 대학을 완전히 졸업하는 선배는 찾아보기 힘들다. 해외대학 한국분교에 재입학, 또는 편입을 위해 입학 초부터 경쟁이 심각하다"라 말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국내 인력부족현상을 낳을것으로 보여 그 심각성이 더 클것으로 파악된다.

해외대학 한국분교출신 대졸자들이 해외기업으로 취업함에 따라 5년 안에 국내 인력수급 문제에 대해 큰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달 2일 미시간 주립대학 한국분교의 개교로 국내

대학중 해외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이 60%에 달했다.

비만도 전체인구 60%

지난 해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한국인 신체체형 조사'의 결과가 11일 발표되었다.

비만도 조사에선 전체 인구의 60%가 비만에 걸려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손가락 길이는 1997년 기준으로 1.5cm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3번 병원 XXX 생리학의사는 "컴퓨터 사용시간이 하루 12시간이 넘어가는 현대인들의 생활습관이 신체변형의 원인이다"라 말했다.

전자주민카드 조작 계속

기록내용 변경으로 살인누명 씌워

지난 11일 부녀자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어 구속되었던 XXX씨(31세)가 전자주민카드의 기록내용을 누군가 임의로 변경하는 방법을 동원해 살인누명을 덮어썬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검찰은 이날 공식발표를 내고 "개인적인 원한관계에 의한 범행으로 추측되고 정보관리공사 근무경력이 있는 자"로 범인수사의 폭을 좁힐 것을 밝혔다.

지난 해 3월 1급 살인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던 XXX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2차공판까지 기각되고 다음 달 9일에 있을 3차공판을 기다리던 중 뒤늦게 전자주민카드의 정보내용이 조작된 사실을 발견하여 풀려나게 되었다.

1998년 처음으로 전자주민카드가 사용된 이후 주민정보 조작을 이용한 범죄건수는 지금까지 6천여건이 넘고있으나 정보관리기술을 보완해도 늘어나는 범죄율을 계속 줄이지 못하고 있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금 여론이 드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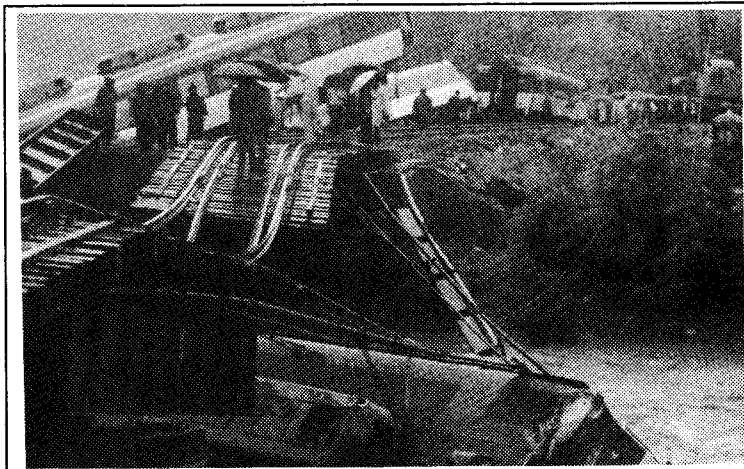
12·19 말세론 등장

제작된 '2013년 말세론'을 주장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종교집단인 '새나라 창조교'가 다시금 올해 12월 19일을 말세의 날이라 주장해 비판의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새나라 창조교 XXX교주는 "2013년 말세론은 수학적 착오로 인한 실수였고 컴퓨터 계산 결과 올해가 확실하다"라 말세를 확신하고 있다.

새나라 창조교 한 신자는 "창조신의 구원이 있을 12월은 혼란과 모순이 가득한 이 세상에 새로운 질서를 가져다 줄것이다"라며 말세까지 1백인 전도대회를 개인적으로 실시할것이라 말했다.

사회학자인 XXX씨는 "국제 독점자본주의 아래 기독교종교와 범죄율을 계속 줄이지 못하고 있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TGV사고 부실시공 원인

지난 3일 많은 인명피해를 냈던 경부고속철도 사고의 원인은 부실공사였음이 밝혀졌다. 경주를 통과하는 선로 중 5개의 교각 철골구조가 강도 부족으로 하중을 이기지 못

해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경부고속철도는 1997년 부실공사로 재시공에 들어갔으나 이번 사고로 인해 당시 재시공도 부실공사였음이 나타났다.

내년 남북한 흡수병합

식량지원 봉쇄로 북한 백기들어

통일원은 지난 10일 '제 12차 북한 기아조사 보고서'에서 북한의 아사사망률이 총 사망률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내년 도 썸 흡수병합을 위한 최초의 준비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03년 부터 식량지원이 완전히 고갈된 북한은 그동안 중국, 러시아 등을 통해 식량을 지원받고 있었으나 최근 미국 국방성이 이를 저지함에 따라 효과적 식량지원 저지가 가능했다. 또한 지속적인 무궁화 13호 인공위성의 정찰활동으로 지속적인 북한의 식량지원에 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정부는 내년도 흡수병합을 함에 따라 국내 건축기업들과 지하자원개발공사측에 선발매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의료단을 파견해 전염병 바이러스의 잔여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통일원 XXX장관은 이날 오후 통일원 기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와 우리 정부의 끊임없는 흡수병합의 노력이 만든 패기"라며 이번 보고서에 대한 소견을 밝혔다.

이와는 반대로 '남북 흡수병합에 반대하는 시민의 모임' XXX 의장은 이번 정부의 발표에 대해 "철저히 밟고 올라서려는 정부의 병합움직임은 언젠가 큰 화를 가져올것이다"라며 적극 반발했다.

1997년 부터 나타났던 북한의 기근현상에 대해 정부는 민간차원 식량지원 운동을 잠시 허용하였으나 1998년 이를 금지하고 철저히 북한을 고립시켜 2001년 4차회담을 성사하여 오늘의 흡수병합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인간복제 방지법' 제정한다

복제인간 불법매매 처벌이 목적

신거래당은 오는 21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인간복제 방지법'을 확정지을것이라 밝혔다.

신거래당 대변인 XXX씨는 11일 성명을 내고 "계속되는 불법적인 복제인간 생산과 신체장

기를 얻기위한 복제인간 매매가 지속되는 현 사태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법안 확정 의지를 표명했다.

보건복지부 XXX장관도 이날 성명을 발표해 "부분적인 신체 장기생산을 위해 복제방지법을

제정하지 않았으나 물지각한 과학자 몇몇에 의해 오늘날은 비참한 현실이 생겨났다"라 "완전한 생명체의 장기를 매매하려는 반 인륜적 움직임을 이제는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경찰 수사력을 동원해 인간복제 장비를 판매한 다는 소문이 많은 서울 C-34 지역을 집중단속하여 혐의가 있는 매매상인을 구속하기로 했다.

목포 23번 대학교 XXX(생물)교수는 복제인간 생산에 대해 "복제인간 생산은 1999년 첫 성공이후 계속되는 불법적 실험으로 인해 별 기술적인 문제가 없어졌을 것이다"라 말했다.

이번 호가 마지막 신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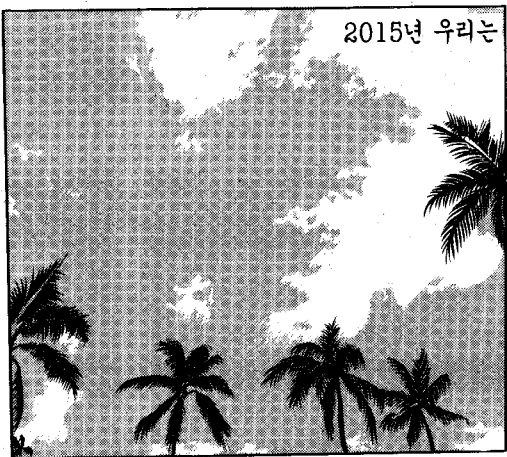
지속적인 통신매체의 발달로 신문 발행부수가 감소하기 시작한 것은 몇 년 전입니다.

이제 우리신문사의 이 신문을 마지막으로 이 땅에 공식적 일간지는 영원히 사라집니다. 그러나 통신뉴스공간에선 영원히 사라지지 않겠습니다.

THE FUTURE TIMES

2015

신성식
(홍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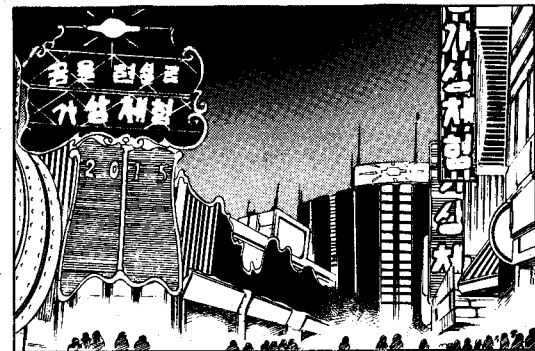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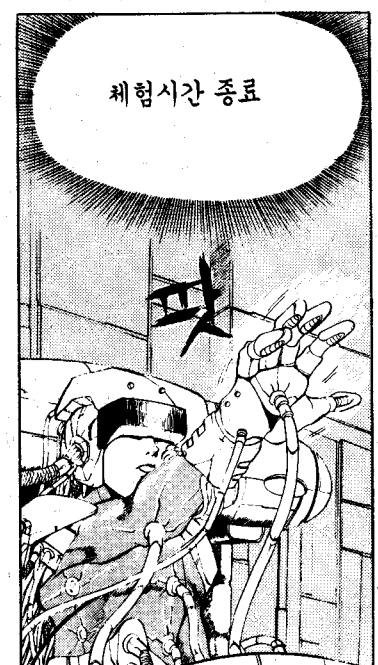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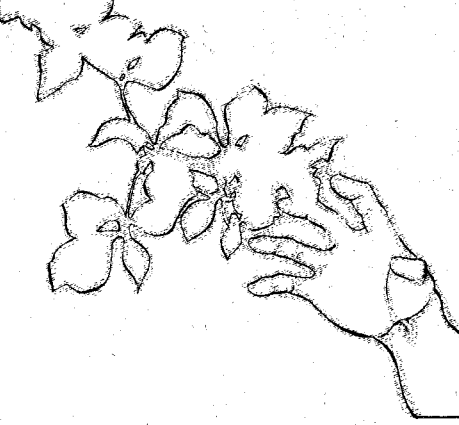
이로록 물로로로



자연의



만화한다



삶에 '절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혼자 남은것 같은 외로움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을때
불치의 병에 걸린 시한부 인생

이제는 희망만 있습니다
지상의 낙원은, 과자로 만든 집은 분명히
이 땅위에 있습니다.

냉동보존 전문업체 I IRON ICE